대적에겐 속수무책이 상책

(에스겔 35:1~15)

10.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11.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12.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13.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14.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15.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 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대적에겐 속수무책이 상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대적에겐 속수무책이 상책'
본문의 내용이 특이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방 열국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끝난 후에 남 왕국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어 이스라엘 선민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시 에돔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에돔에 대한 예언은 이미 25장에서 나왔는데 선민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 중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염두에 두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십육계(三十六計)는 손자병법보다 더 오래된 병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계책을 주위상책(走爲上策)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삼십육계 줄행랑"이라는 말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병법이 있지만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도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극적 의미는 아닙니다.
삼십육계는 한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 실전을 통해 얻어진 지혜를 모은 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병법서의 바탕에는 다만 전쟁에서 승리를 욕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이

존엄하기에 전쟁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도 “잘 싸우는 자는 이기기 쉬운 것에 이기는 자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렵게 싸워서 이기거나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내하며 혈전을 벌이는 것이 결코 잘하는 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삼십육계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국가 간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도 싸우고 선민도 싸웁니다. 그런데 선민에게는 삼십육계 줄행랑보다도 더 우선하는 병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속수무책(束手無策)입니다. 다만 선민의 속수무책은 마음의 줄행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모함할 때에, 삼십육계의 최선의 방책을 마음에 적용해서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몸에 속한 세상에서의 삶은 속수무책이 되지만 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속수무책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손을 묶은 듯이 꼼짝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몸을 속수무책으로 만드는 것이야 말로 선민이 대적들을 마주하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도망간다지만 몸은 도망칠 수도 없으니 그 자리에 남아서 당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니 왜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일까요?

지난 4월 15일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이 화재와 관련된 기사를 보니 기자가 속수무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파리 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 속에서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성당이 화마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밤새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불길이 좀체 잡히지 않으면서 파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속수무책으로 발을 동동 굴렀다. 시민들은 함께 기도를 하며 화마가 잡히기를 기원했지만 첨탑이 붕괴되는 모습에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안타까워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성당 자체뿐만 아니라 성당 안에는 값진 예술품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문화재들이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습이 바로 속수무책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인관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를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격동시키고 강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모함할 때에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짐승처럼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마귀

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삶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속수무책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양은 물어뜯을 이빨도 없고 방어할 발톱도 없습니다. 양은 이리들 속에 있더라도 끝까지 양으로써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이리 같은 대적들이 공격할까봐 사자와 표범 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양으로 남아있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본문에서 에돔에 관한 예언이 나타나는 이유와 속수무책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앞장을 보면 선민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가 망한 것을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관계하든지 같은 계층의 사람들끼리 관계하든지 선민이라면 선민의 특권을 드러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민이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선민의 나라는 이방나라들과 똑같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냥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민의 특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먹고 마셔서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선민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나 심지어 내 몸에 대해서조차 관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독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혼밥혼술을 하듯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기운에 취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떤 관계도 시작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 39~40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취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이러한 특권을 포기했고 만나는 모든 대상을 마음을 채우기 위한 먹잇감과 사냥감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마음의 채움 거리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부부간에도 일어나고 부모자식 간에도 일어납니다. 심지어 내 몸에 대해서도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크기의 마음은 다른 어떤 대상으로도 채워질 수 없기에 세상 전체를 사냥터로 바꿔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사랑의 터전이 아니라 사냥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허락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먹고 마셔서 배부르고 취한 결과 사람을 만날 때에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됩니

다. 이럴 때에 선민간의 인간관계는 서로에게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강화하는 교제의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다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이 선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먹고 마셔서 배부르고 취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만나는 사람을 집어삼키려는 이리처럼 으르렁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리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선민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좋은 말과 아름다운 말로 구슬릴지라도 속에는 무엇이든 빼내어 가지려는 속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민은 나를 위한 방어의 마음, 나를 위한 추구의 마음, 나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계산의 마음이 없이 이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선민에게 대적이 되는 사람들의 대표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에돔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에돔은 선민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놓고 다투었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화해하였으나 그 후손들인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본문에서는 선민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표로 에돔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민족과 두 땅은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입니다. 에돔은 선민의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정복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남 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도 에돔은 바벨론의 편에 섰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벨론을 돕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협상을 하여 유다 땅 전체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바벨론은 이러한 에돔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돔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호시탐탐 선민의 나라를 향해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낸 이리와 같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은 하나님을 혼밥혼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세상에서 바라지도 않고 나 자신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선민들이 에돔을 상대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적이 선민을 집어삼키려고 공격하고 비난할 때에 10절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에돔이 선민의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기를 꿈꾸고 계획하였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에돔이 선민을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돔

을 심판하실 때에 선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13~15절도 이와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보자면 선민은 절대로 대적들에 의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적들이 선민을 해치려고 계획하고 모함하고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선민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그들을 덮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선민은 결단코 대적들에 의해서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흔밥흔술하여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됩니다. 이때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원수인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한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를 잡아먹을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라도 선민의 대처는 속수무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웃는 얼굴에 속아 넘어가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취해서 인간관계를 해나갈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해야 할 마땅한 행동과 말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상대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시며 개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이 무색하게 대적이 날뛴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흔밥흔술하는 것에 주력할 뿐입니다. 대적이 날뛰면 날뛸수록 하나님으로 더욱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더욱 취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대적을 알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보고 계시며 감시하시듯이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개입은 더욱 강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소 치사해보일 수도 있고, 고자질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자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상대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에 대한 분노를 점점 더 커지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원수가 대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하나님에게 몰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느냐는 것입니다. 원수가 10개로 공격합니다. 나의 대처는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20개로 공격하면 더욱 하나님에 대한 강도를 높여서 대처합니다. 30개로 공격하면 하나님에 대한 몰두를 30개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의 전쟁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줄행랑을 치고 몸은 속수무책으로 있을 때에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표적 예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속수무책을 유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바로의 마음이 강퍅해질수록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커졌습니다. 결국 홍해를 앞두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 하였을 때에 오히려 애굽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민이 원수와 대적을 대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인간관계의 마스터키는 하나님 혼밥혼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강도 높게 적용할 때에 원수와 대적의 대처가 이루어집니다. 선민이 해야 하는 일은 결코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인관관계에서 상대를 압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결코 원수와 대적들에게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원수를 격동시키면 시킬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 혼밥혼술의 강도를 높여갈 뿐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속수무책의 병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당하고만 사는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당당하면 맞받아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목사님과 한편이 된 교인들이 상대방 편을 마귀라고 욕하며 몇 년에 걸쳐 법정싸움까지 한 끝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당시에 1,500명이었던 교회의 교인이 70명만 남았습니다. 분명히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마귀에게 격동당한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말로는 마귀를 대적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마귀가 이용하는 사람을 대적하여 발톱과 이빨을 세우는 동안 스스로 마귀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격동시켜서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에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선민의 타락입니다. 내가 실제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할 말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아무 잘못도 없이 박해를 당할 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원수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었고 속수무책을 유지할 때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양으로 살지 못하고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어 이리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으로 삼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선민이 망한 이유도 이와 같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적들에게 공격받으면 인생이 끝장날까봐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적들에게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고 싸움을 시작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대적은 원래 불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결코 이리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고 선민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대적들의 공격이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으로 배

부르고 하나님으로 취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하늘의 기운으로 강인한 체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대적이 30개로 공격하면 나는 100개의 하늘기운을 가짐으로써 아무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적과 똑같이 살아가고자한다면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인간관계를 실패한 이유는 자기방어와 이익추구를 위해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낸 결과였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위해 인간관계를 격동하여 우리를 대적하고 원수로 여기게 합니다.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느끼게 하고 손해를 본 것으로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선민들은 이러한 마귀의 이간질에 그대로 놀아났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상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할지라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제 무덤을 파고 있을 뿐입니다. 원수가 공격을 하던 비난을 하던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나면 나타나는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하나도 밉지 않습니다. 또 그 단계를 넘어서면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 반응입니다.

미움이나 원망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원수가 날뛰면 내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보다 원수의 능력을 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파괴할 수 있는 강한 자라고 원수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반응으로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는 것은 엄청난 불신앙이고, 하나님 마음에 절망감을 가져다주는 선민의 모습입니다.

우등생이었던 자녀가 시험에 실패해서 술에 찌들어 살게 되었다면 부모가 느끼는 절망감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느끼시는 마음이 이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 않습니다. 조금 비난받았다고 해서 견디지 못하고 억울해하고 똑같이 비난하는 자가 된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절망감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있고 대적자가 있습니까? 그들이 이익을 빼앗아가려고 합니까?

우선 십자가를 통해 마음이 삼십육계 줄행랑을 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남겨진 몸은 속수무책의 방책 안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장갑 삼으신 대표적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것은 속수무책의 과정을 통과한 결과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

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대적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의 방책을 통과하신 후에 하나님의 장갑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 삼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움직이실 것이고 때로는 나를 통하지 않고도 원수에게 직접 영향을 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교조차도 하나님의 최선이기에 승리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죄 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승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대적에게는 속수무책이 상책입니다. 이 병법을 삶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은 십자가를 통해 삼십육계 줄행랑을 쳐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함을 통하여 부활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나님을 흔밥흔술하고, 몸은 속수무책이 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속수무책은 이 세상에서 나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최고최선의 병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중에 나에게 친절한 자도 있겠지만 나를 적대시하는 원수와 대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취해서 하늘기운으로 언제나 최고 최선의 말을 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대적 앞에서도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속수무책의 최상의 방책으로만 그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